

3. 사회문화

□ 민족 구성

- 인도계(Indo-Mauritian) : 68%
- 크리올(Creole) : 27%
- 중국계(Sino-Mauritian) : 3%
- 프랑스계(Franco-Mauritian) : 2%

□ 언어

모리셔스의 공용어는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아왔기에 영어이고 모든 정부의 행정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지만 역사적으로 프랑스 식민지에서 영국의 식민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세력과 이미 현지인들의 습관으로 인하여 불어의 사용은 계속되었고 영국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에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공용어인 영어 보다는 프랑스와 아프리카 토속언어와 프랑스어가 결합된 크레올어가 일반적으로 통용

학교에서의 수업과 방송매체에서의 언어도 프랑스어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인도계의 주민이 대다수이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많기에 일부지역에서는 힌두어가 널리 사용되기도 함

학교에서도 영어, 프랑스어 교육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모리셔스인들은 언어습득에 상당히 재능이 있는 국민으로 대부분은 크레올, 프랑스어, 영어의 3가지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종교

- 힌두교 : 52%
- 로마 카톨릭교 : 28.3%
- 이슬람교 : 16.6%
- 기타 기독교 : 8.6%
- 기타 : 3.1%
- 무교 : 0.4%
- 토속교(명명되지 않음) : 0.3%

한국문화 유입 정도

- 아직까지 뚜렷한 한류붐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종영한 김현중 주연의 '장난스런 키스'라는 드라마의 특별판을 구매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